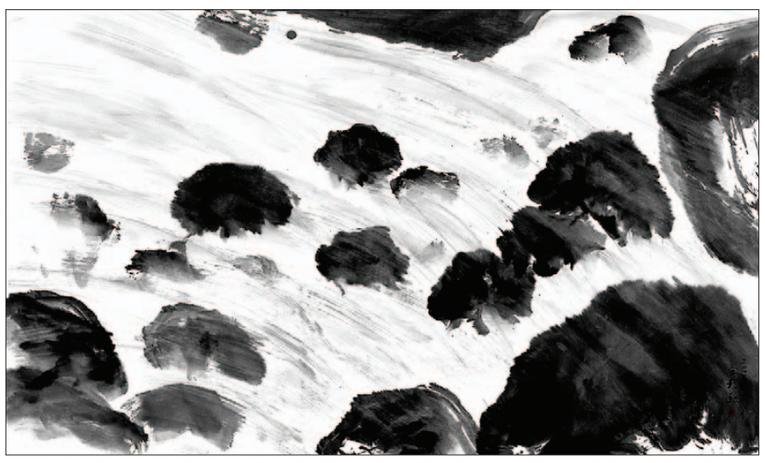
묵향과 여백 사이서 찾은 '休'

김대열 교수 '상회지상' 전…9월 25일~10월 1일



동국대 김대열 교수의 '상회지상' 전이 9월 25일~10월 1일까지 공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사진은 김대열 作, 천명풍동(川明風動)

반복적이고 숨 가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휴식의 미학, 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시가 열린다. 김대열 작가(동국대 한국화 전공 교수)의 수묵화전 '상회지상(象外之象)' 전이 공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9월 25일~10월 1일 열리는 전시에서 김 교수는 담백하고도 절제된 수묵화 기법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수무상형, 별유동천, 천명풍동, 석본무성, 천지화동, 삼한의적, 운고기정 등의 작품은 거침없는 필력의 속도감과 세련된 공간운용의 여백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현대문인화로 풀어내는 선화(禪畵)의 세계를 보여준다.

세차게 바람을 가르며 내려솟는 시원한 냇물 그림에 '천명풍동(川明風動)' 이란 제목을 붙였고, 마음이 한가로우니 뜻 한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내용의 '심한의적(心閑意適)' 역시 전통이나 법도에 구애 받음 없는 과감하고 세찬 필치가 돋보인다.

지극히 간결한 선묘와 최소한의 색채로 완성하는 선화는 정제된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화폭에 담아낸다. 과감하고 세찬 기운이 넘치지만 거칠지 않고, 미려하고 한없이 부드럽지만 유약하지 않은 곡선, 농묵(濃墨)과 담묵(淡墨)의 적절한 조화는 중도의 길을 찾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번 전시의 평론을 쓴 〈월간 미술〉 이건수 편집장은 "무의식적이고 자동기술적으로 보이는 김대열의 일획일필(一劃一筆)은 그가 체득한 도(道)랄까 신운(神韻)일까 하는 것, 다시 말해 생명의 기운을 단속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때문에 그의 화면은 선적(禪的)인 뉘앙스를 짙게 풍긴다"고 전했다.

한편, 김대열 작가는 그동안 북경 · 서울 · 대만 등 국내외 주요 갤러리에서 13회의 개인전과 100회 이상의 기획 단체전을 가졌다. 현재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교수로서 동국대 동서미술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 · (사)한국체육진흥회 이사 · (사)대한구조봉사회 이사 ·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02)735-993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 불화의 현대화·대중화 꾀한다

4회 회원전 여는 '불화이야기'

불화 전수의 새로운 모델 제시





전통불화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는 불화이야기가 9월 24~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제 13전시실에서 제 4회 회원전을 연다. 작품은 조인숙의 '금니수월관음도' (사진 왼쪽)와 조해종의 '삼세후불탱'

불화는 스님이나 전문 불화가만 그리는 특별한 그림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불화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불화의 현대화를 펼쳐가는 이들이 있다. 문화강좌 수강생에서부터 전문 불화가까지 불화이야기(회장 장부영)는 신심을 바탕으로 불화를 세상에 알려가고 있는 모임이다.

지도강사 전연호 씨(일섭문도회 회장)를 필두로 14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불화이야기는 전통불화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꾀하며 꾸준히 불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9월 24~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제 13전시실에서 불화이야기 제 4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23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석가 삼존도, 꽃이 피네, 금니 수월관음도, 백의 관음도 등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지도강사 전연호 씨는 "아마추어로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16명의 작가가 입문을 했을 만큼 성과가 크다. 대부분이 신심을 바탕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나가니 이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작 중 조해종(중요무형문화제 제 118호 불화장 이수자)의 삼세후불탱은 정교하고도 수준 높은 작품이다.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약사여래불, 서방정토 아미타여래불을 표현한 작품은 후불탱의 진수를 보여준다. 조인숙의 '금니수월 관음도' 는 고려의 수월관음도를 바탕으로 상호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표현했다.

문화센터강좌로 시작해 작가 양성

14년 동안 200여 회원 다녀가

9월 24~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서

석가삼존도 등 23점 선보여

전통 바탕에 현대성 가미한 작품



불화이야기는 14년전 문화강좌로 시작해 현재 16명의 불화가를 배출할 만큼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 씨는 불화의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화는 종교적인 그림으로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통성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 불화가 과거 불화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통성을 유지하되 상호 등에서 현대적인 의미를 가해 변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새로운 불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불화이야기는 대구불교방송 문화센터 강좌로 시작해 현재 불광사 경북불교대 문화센터까지 자리를 옮기며 14년 동안 200여 명의 회원이 거쳐 갔다. 강좌 초기만 해도 불화가 일반인들에게 무속 그림으로 인식되는 등 선입견이 많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각종 미술대전에 불화 부분이 신설되는 등 불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불화이야기 회장 장부용 씨는 불화 그리기는 기도하는 마음과 같다고 전한다. "저는 6년째 불화이야기를 통해 심신을 다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정진하는 수행의 한 과정으로 불화를 그리고 있죠. 부처님의 다양한 상호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일이지 싶어요. 또 집중하고 삼매에 빠지다 보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불화이야기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각 사찰에서 채색 봉사활동이나 탱화 보시 등을 하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기도 하다.

속도의 경쟁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불화는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숙식을 같이하며 그 기능과 정신을 이어받던 도제식 전수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불화이야기의 성과는 크다. 문화강좌라는 가벼운 수업으로 시작해 전문작가 배출까지 이르는 불화이야기는 불화가 대중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수 방법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053)606-6114

정혜숙 기자

가을, 남산길 걸으며 힐링하세요

BBS 남산걷기대회 · 북콘서트 개최… 9월 29일 동국대 일대서

BBS 불교방송은 9월 29일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 북측 순환로 일대에서 '책 읽는 가을 남산길 산책' 행사를 개최한다.

개국 23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불교방송 시청자와 청취자, 후원자, 스님과 일반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가, 1부 걷기대회와 2부 북 콘서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걷기대회는 걷기와 명상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산책길 곳곳에 명상 주제가 담긴 '걸어가는 게시판' 이 설치된다.

2부 북콘스트에는 불서 작가 스님들이 출연해 대중들과 훈훈한 시간을 갖는다.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다〉의 저자 월호 스님, 〈걱정말고 기도하라〉의 법안 스님, 그리고 〈치유하는 불교읽기〉의 서광 스님이 출연한다. 사회는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보리살타의 서재' 에 고정 출연 중인 칼럼니스트 이미령 씨가 맡는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행사 내용은 BBS-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다. (02)3446-4464

정혜숙 기자

조형언어로 해석한 '心' 의 실체

해인아트프로젝트…9월 27일~11월 10일

해인사가 주최하는 '해인아트프로젝트' 가 9월 27일~11월 10일 해인사 일대에서 열린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특별행사로 열리는 이 행사는 '마음(心)' 을 주제로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홍콩 등에서 30여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통 사찰과 자연 그리고 현대미술의 조화를 모색한 평면 · 입체 · 미디어 · 설치 등 7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실체가 없는 '마음' 을 독특한 조형언어로 해석해 형상화한다.

특히 사찰 경내는 물론 성보박물관 가야산 홍류동 계곡에서 해인사까지 이르는 6㎞ 거리의 탐방로인 소리길에도 작품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스페인 · 인도 등 30여 명 작가 참여

해인사서 소리길까지 70작품 설치

쉴파 굽타는 소리길에서 해인사로 가는 길에 작은 메시지들이 담긴 돌 조각 100개를 바닥에 놓고 관람객이 발에 밟히는 돌에 새겨진 단어들을 읽어가면서 기억을 되짚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100 스텝스(100 Steps)' 라는 작품을 설치한다.

렁 미핑은 스님들이 깎고 남은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2천 개의 어린아이 신발로 이뤄진 작품 '미래를 기억하다 2013' 을 출품한다. 윤석남은 학대받고 버려진 유기견의 아픔을 달래고자 5년여에 걸쳐 제작한 설치작품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를 소리길과 해인사 경내에 설치해 유기견들이 자연의 품에서 슬픔을 치유하고 극락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고려 시대까지 이어져 오다 조선시대에 사라졌던 검은 도자기 흑유를 되살려낸 도예가 청곡 김시영은 검은 달항아리와 드로잉을 선보이고 뮌은 해인사 대적광전 앞마당에 서 있는 정중탑 표면에 영상을 투사한 작품 '긴 채움' 을 내놓는다.

정혜숙 기자



'해인아트프로젝트' 가 9월 27일~11월 10일 해인사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은 해인사 정중탑 표면에 영상을 투사한 뮌의 '긴 채움'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179만원
출발일 : 2013년 10월 19일, 10월 26일
※아시아나항공(직항) – 별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양곤 / 바고 / 시리암(내셔널빌리지) – 5일 99만원
출발일 : 2013년 10월 16일, 10월 23일
※아시아나항공(직항) – 별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인천 / 김해공항 출발 – 실속 (타이항공 초특가)
* 국내선 항공 이용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7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강력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10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2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29만원
• 대만	5일	12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 + 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